

2020년 1월 21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 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김지호(2072) / 제공일: 1월 20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설 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

- 김현수 장관, 인천공항 검역현장 점검 및
철저한 국경검역 태세 유지 당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설 연휴기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21일 인천공항을 방문,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, 철저한 국경검역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
- 아울러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(공항공사, 항공사) 직원들과 함께 설 연휴를 맞아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캠페인 실시
- ◆ 농식품부는 1월말까지 집중검역 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, 휴대축산물 반입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
- 전국 공항만(12개소)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식품부·검역본부 합동점검반(7개반, 15명)을 동원하여 일제 점검하고 주요 공항에 대하여 농식품부 간부진이 직접 점검 실시
- * 점검일자 및 장소 : 1월 9일 청주공항(기획조정실장), 1월 10일 김포공항(차관보), 1월 10일 김해공항(식품산업정책실장)

□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월 21일(화) 인천국제공항(1터미널)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였다.

○ 또한 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공사, 항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.

○ 김 장관은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인근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국경검역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 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.

○ 전국 공항만(12개소)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식품부·검역본부 합동점검반(7개반, 15명)을 동원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, 주요 공항은 농식품부 간부진이 직접 점검하였다

* 점검일자 및 장소 : 1.9일 청주공항(기획조정실장), 1.10일 김포공항(차관보), 1.10일 김해공항(식품산업정책실장)

○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,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.

* 2020년 1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10건(중국인 9, 카자흐스탄인 1)

** 과태료 : (발생국산 돈육제품) 1회/500만원, 2회/750만원, 3회/1,000만원

(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) 1회/100만원, 2회/300만원, 3회/ 500만원

○ 또한, 해외여행객이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
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
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

- 전국 12개 공항만에서는 항공사·선사를 대상으로 검역안내
홍보 의무화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항공권 예약 시,
발권 시, 입출국 시 기내방송 등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
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, 베트남 등 아프리카
돼지열병(ASF)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·
소시지·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
과의 접촉,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* 관련 현장 점검사진 17시경 배포예정